



2017-65

「정치」

트럼프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에 끼칠 영향

■ 중남미

안태환 강의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 주요내용

- 트럼프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2008년의 위기에 이어 2016~2017년에 다시 파국이 온 것을 의미함. 또한 미국 패권의 쇠락과 세계 체제의 위기를 의미함.
- 트럼프의 기행에 가까운 이상한 정책들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책들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가 흔들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이러한 미국의 흔들림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임.
-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과거 500년 전부터 유럽 등 세계체제의 중심부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므로 이번에도 우파와 좌파 세력 모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1. 이슈 현황

▶ **트럼프의 등장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2008년의 위기에 이어 2016~2017년에 다시 파국이 온 것을 의미함. 또한 미국 패권의 쇠락과 세계 체제의 위기를 의미함.**

□ 미국의 ‘새로운’ 우파인 트럼프는 가난한 노동자를 기반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전통적으로 대안적 좌파가 부재한 미국에서 트럼프 이전에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함. 다국적 기업과 정보통신 분야의 거대기업만이 이익을 얻는 체제에서 미국 노동자 대중의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고 이런 두려움은 기존의 엘리트 정당정치 체제를 무력화시켰음.
-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등장을 단순히 경제정책에 있어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됨.
- 트럼프가 취임 직후 TPP 탈퇴와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설치, 반이민법 행정명령 등 마치 몰아치듯이 여러 정책들을 내놓는 이유는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일종의 “쇼”일 수도 있는)으로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음.

□ 트럼프의 등장으로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우파는 당황하고 있음

- 현재의 멕시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집권여당은 힐러리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임.
- 트럼프가 TPP에 반대하고 있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한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의 정책 지향성이 불안해졌음.
- 특히 국경장벽 설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나프타 재협상 등이 일련의 조치를 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우파 페냐 니에토 정부는 멕시코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멕시코의 좌파 지도자인 오브라도르에게 새로운 정치적인 기회를 주고 있음.
- 상식적으로 부드러운 외교적 수사를 견어치우고 나프타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바뀌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며 따라서 멕시코 우파 정부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
-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의 기득권층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인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우파 정부들은 힐러리가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으며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음.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우파 세력은 극우가 아니며 자유주의를 핵심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기득권계급을 대표하는 힐러리와 친화력이 있기 때문임.
- 그로 인해 기존의 정치지형에 미세한 변화가 일고 있음.

-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우파 마크리 정부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인종주의적 정책에 대한 항의에 있어 볼리비아의 좌파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경우,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

- 얼핏 보아서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공세 앞에서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임.
- 쿠바는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미국과 화해한 이후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종식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쿠바는 미국에 대한 개방으로 세계체제에 편입될 것을 희망하면서도 쿠바의 정체성(소위 독특한 쿠바의 경제 사회모델)에 흔들림이 있을 것을 우려해왔음.
- 그런 전략적 고려로 2016년 11월 중순에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함.
- 현재 트럼프는 여차하면 쿠바와의 국교재개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 한편, 오바마의 쿠바 방문 이후 미국 관광객이 폭증했던 쿠바의 관광업계도 수요 축소를 걱정하고 있음.
- 그러나 좌파정부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정책들에 대해 “라틴아메리카 국가연합(CELAC)”을 통해 항의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큼.
- 그리고 멕시코의 오래된 속설인 “왜 멕시코는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멀고 미국으로부터는 이렇게 가까운가?”하는 탄식이 다시 나오면서 1994년의 나프타 이후 ‘북’으로 향했던 멕시코의 시선이 형제 국가들이 있는 ‘남’으로 향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 얼마 전부터 전략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멕시코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이미 하고 있음.
- 나프타 재협상 문제는 멕시코 국가이익에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음.
- 그동안의 나프타 협정의 결과가 멕시코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임.
- 이런 흐름은 두 차례의 대통령 도전에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좌파 정치인인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왜냐하면, 나프타의 부정적 영향으로 농업이 붕괴하고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미국을 향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오브라도르가 부각하고 내수를 부양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그의 대안적 정책에 대해 멕시코 시민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2. 원인과 분석

▶ **트럼프의 기행에 가까운 이상한 정책들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책들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가 흔들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이러한 미국의 흔들림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임.**

-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삶이 힘들게 됨.
 - 이를 네그리는 ‘삶 정치(biopolitic)’로 표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미국의 주류 기득권 계급이 정상적으로(기존의 정치적 행태를 지속하면서) ‘삶 정치’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위기에 처해있음.
 - 그러므로 트럼프의 기행에 가까운 이상한 정책들 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책들에 즉각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중심부가 흔들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그러므로 이 같은 미국의 흔들림이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다시 말해, 미국이 19세기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취해 온 패권주의적이고 위계서열적인 정책적 흐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인식하고 있음.
 - 이는 트럼프 이전의 오바마 정부에서 상당수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최악의 코너로 몰린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전망이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 세계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중에게는 더욱 폭력성이 가해질 가능성도 큼.
 - 즉 사회적, 경제적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선거 때마다 표를 던지는 것을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흐름이 바뀌어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사회운동이 다시 강화되어 직접민주주의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미국의 주류 기득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미국 내부의 문제이지 전통적으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취해 온 위계서열적 정책은 실제로 별로 변한 것이 없음.
 - 예를 들어 트럼프가 현재 내세우는 멕시코와의 분리장벽 설치도 그 시작은 1994년의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부터였음.

-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가 트럼프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트럼프가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막상 건설 인부 등의 하급 노동을 담당할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면 누가 이런 건설을 맡을지도 불확실함.
 -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동안 미국의 기득권 계급이 추진해온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이 체제의 전제들을 파괴하는 트럼프를 이들 기득권 계급이 강력히 비판하고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극우적 포퓰리스트인 트럼프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비판과 연계하여 트럼프와 차베스가 동일한 포퓰리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의 담론이 워싱턴 포스트 등의 주류 언론에 실리고 있음.
 - 안드레스 미겔 론돈에 의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차베스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In Venezuela, we couldn't stop Chavez. Don't mistake the same mistakes we did)’라는 칼럼이 그 예임.
 - 이 글에서 필자는 기득권계급에 대한 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형식논리로 양자를 병치하고 있으면서 극우와 급진 좌파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있음.

3. 전망과 시사점

❖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과거 500년 전부터 유럽 등 세계체제의 중심부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므로 이번에도 우파와 좌파 세력 모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지향 때문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대중(민중)의 깊은 무의식적 공동체적 에너지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들을 모래알처럼 파편화시켰음. 미국도 마찬가지였음.
 - 이에 배제와 불평등에 지친 미국의 백인 하층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트럼프도 이런 모래알처럼 파편화된 미국사회를 구원할 수 없고 아니 대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더욱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거시적으로 보아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그 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임.
 -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깊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대중이기 때문임.
 - 이에 비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중간 및 중류계급은 이런 끈(유대감)이 끊어져 있어 항시적 우울증에 걸려있게 됨.
- 2016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우파가 승리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전반적인 정치 지형은 우파가 유리하게 되었지만 최근의 트럼프의 등장으로 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의 중도 우파 정부들은 과거에 가졌던(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던) 신자유주의적 모델을 다시 복구시키길 원하고 있었으나 그런 정치적 목표가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경제 사회적 배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임.
 -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주민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도 사정이 심각하지만 미디어에서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음.
 - 칠레도 신자유주의적 사회적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임.
- 우파의 승리 여부가 불안하게 전망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임.
 - 마크리 정부 집권 기간인 약 10개월 동안의 경제 성적이 시원치 않기 때문임.
 -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대중의 구매력 축소에 의한 소비의 감소임.
 - 또한 마크리는 긴축 재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싶어 하지만 대중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음.
- 기득권 계급이 다시 권력을 찾아온 브라질도 정치적 정당성이 약해 우파적 구조 개혁이 쉽지 않음.
 - 다만 브라질에서 성공한 의회를 통한 소프트한 쿠데타가 브라질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해결 방식이라 우려스러운 상황임.
 - 아무튼 경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는 라틴아메리카에게 2008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함.
 -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아주 활발했고 원자재 가격이 높았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우파가 전반적으로 헤게모니를 다시 찾아왔지만 경제적 맥락이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님.
- 이런 불확실성 즉, 거시적 세계체제의 분열과 혼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더 강경한 우파의

출현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우파와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기득권계급 내부의 분열로 인한 틈새가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보기도 함.

□ 매우 불안정한 현재의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은 마치 1990년대 중반의 유동적인 상황과 유사함.

- 왜냐하면 트럼프의 극우적 정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의 비 주류적 정치행태는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 사회운동으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내는 정치 지형의 전개 또한 가능하기 때문임. **EMERiCs**

출처

Rebellion, Venezuelanalysis 등 인터넷 언론

💡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